

# 해체주의 건축의 비정형적 조형특성이 실내공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연구

-COOP HIMMELBLAU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Irregular Formative Art in De-constructivism Architecture influenced in Interior Space

박미현, 윤재은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실내설계전공

Park, Mi-Hyun, Yoon, Jae-Eun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Interior Design

• Key words: De-constructivism, Irregular Formative, COOP HIMMELBLAU

## 1. 서론

해체주의 건축은 물적 차원이 아닌 정신성의 영역을 건축에 표현한 플라톤적 사고와 동양의 선(禪)사상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존재해 있다. 해체주의의 기본이념은 관념적 시각을 배제하고 사물을 비평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해체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건축을 정신성의 프로젝트로 본다는 것은, 우선 형식미학적 태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이후 건축은 인간의 관념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질서, 비례, 통일성, 시대적 가치체계, 인식의 틀에 의해 공간의 조형적 표현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1)해체주의 이론과 비정형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2)COOP HIMMELBLAU의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에 대한 특징과 디자인의 개념을 파악하며, 3)실내공간에서의 비정형적 조형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2. 해체주의의 이론적 고찰

### 2-1.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구조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탈구조주의로 전환한 대표적 인물이었다면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구조주의의 기본면제를 그 근본부터 뒤흔들며 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1966년 10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The language of Criticism of Man)’이라는 주제하에 열린 국제 심포지움에서 데리다가 발표한 ‘인문과학의 언어행위에 있어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Human Science)’라는 논문은 플라톤 이래의 서구 형이상학 및 구조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기였고 탈구조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물이었다.

데리다는 기호가 완전한 현존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differance*(차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다. *differance*에는 다르게 하다(to differ)라는 뜻과 지연시키다(to defer)라는 두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 2-2 .비정형성

‘비정형적’ (informal)이라는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정형적이지 않은’, ‘형식적이지 않은’ 혹은 ‘정해진 철자를 다르지 않는’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단어의 프랑스어로서의 앵포르멜(informel)이란 좁은 의미에서 1950년대 전위 미술운동인 ‘아트 앵포르멜(art informel)

’이나 ‘비정형 추상회화(informal abstract painting)’의 명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 1)기하충돌

생상성의 문제와 조형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던 노력은 폴 루돌프에 의해 이끌어진 새로소터 스쿨 이후 모던 바로크와 기하충돌로 나타났다. 특히 기하충돌 기법에 의한 형태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전의 단순한 평면 상에서의 기하충돌은 해체주의에 와서 2차원 뿐만 아니라 3차원적으로 기하충돌이 적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매스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입, 중첩시킴으로서 더욱 복잡한 비정형적인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해체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기하충돌 기법은 2차원적인 현상에서 벗어나 3차원 매스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 3차원적인 매스 충돌은 중력방향의 직교 좌표계에서 탈피하여 외벽을 사선방향으로 구성하거나 아예 매스들이 서로 중첩함으로써 하늘로 부유하려는 반중력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 2)모서리 파괴

복합공간의 개념을 육면체의 폐쇄성을 깨는 개방성으로 정의할 경우 모서리는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상징적 부위이다. 전통적인 유클리드 기하 질서 아래에서 모서리는 정형화된 공간의 윤곽을 형성하다보면 남는 나머지 영역이다.

건축에서는 모서리를 정형적인 형태에 의해 모서리를 절단하고 유리를 끼워 넣어 비정형적인 형태를 유도하는가 하면 여기서 더욱 발전하여 단순한 모서리 절단이 아닌 아예 모서리가 폭발한 듯한 이미지를 통해 명확한 형을 규정할 수 없는 비정형적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 3)접기

‘fold’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름’, ‘중첩된 기복’, ‘접다’, ‘안다’, ‘싸다’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서는 분리되어 있는 두 존재를 엮어주고 두 요소들이 서로 얽히면서 변형되고 생성하는 반응을 제공해주는 유기적인 전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과학과 르네 톰(René Thom)의 급변이론(Catastrophes Theory)<sup>1)</sup>과 생물학, 들뢰즈의 철학 등으로 대변

1) 급변이론(Catastrophes Theory)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위

되는 접기 기법은 '생성의 논리' 를 인식론적 기반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fold' 의 명사형인 '접힘(folding)' 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에 의해 나타난다.

현대건축에서 접기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건축가들은 다양하고, 그들 대부분이 유사한 맥락으로 자신의 건축에 접기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로 다른 두 형태를 위상학적인 변형의 과정을 통하여 연속적인 변형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극도의 비정형적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 3. 쿵 힘멜브라우의 비정형성과 실내공간

#### 3-1. 쿵 힘멜브라우

쿵 힘멜브라우는 열린건축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불확정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열린건축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충족적인 구조물을 의미한다. 즉 공간의 장래 사용자를 구속하지 않고, 자기 충족으로 일정 변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들로 구성된 구조물인 것이다. 이것은 안정적이고 확고한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새로운 존재를 지각하는 열린마음을 내포한다. 전통적인 규범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 것을 표출하게 되고, 다원적인 세계를 현상 그대로 받아들인다.

#### 3-2. 건축에 나타난 비정형적 표현

쿵 힘멜브라우는 이미 만들어진 전통을 완전히 포기하고 건축공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새로운 규칙을 전개한다. 그 공간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건축 요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모든 건축 요소는 그것의 유일한 위치, 형상, 각도, 기능, 재료에 의해 자신의 자리를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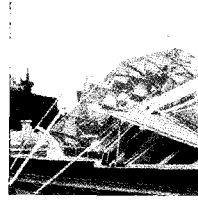
극단적인 미학, 폭발적인 에너지, 절대적 창의성에 의한 찬사를 받고 있는 쿵 힘멜브라우는 합리적이고 교란되지 않는 구조적 그리드 체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체계는 복잡한 체계라는 극적인 공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면서도 나란히 사용된다.

쿵 힘멜브라우의 비정형적 특징의 작품 중 하나인 옥상개축은 오래된 건물의 옥상을 변호사 사무실로 개조하는 것으로 그는 여기에서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기존의 질서에 반대하는 태도로서 탈중심, 형태의 왜곡, 의미의 불확정성을 통해 무질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기하조작의 개념을 뛰어넘어 기하학적 질서를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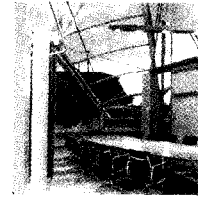
'대변이' 라기 보다는 자연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단계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COOP HIMMELBLAU라는 그룹의 이름은 이들의 작품속에 상징적인 SIGN인 유럽의 표준색 RAL1515인 하늘빛 푸른색(HIMMELBLAU, SKY-BLUE)을 표상하고 있으며, 협동작업(CO-OPERATION)을 한다는 영어단어를 함께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전히 파괴함으로써 정형적인 형태의 틀을 깨고 있다.



<사진 1> 옥상개조안의 외부사진



<사진 2> 옥상개조안의 회의실 내부

### 4. 실내공간에 나타난 비정형성

쿵 힘멜브라우의 작품들의 실내 드로잉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내벽을 감싸는 불규칙한 외벽과 함께 실내구성재를 의도적으로 병치시킴으로써 허구적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근대 건축이 추구해 온 직교좌표에 의한 벽체나 기둥의 질서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있으며 동시에 중심성이 관여된 고전 건축의 전통적인 공간 구성법에서 벗어나 구조와 관계없이 비정형으로 설치된 구성재에 의한 실내공간은 긴장과 구축의 구성적 리듬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실내 파티션 벽의 불규칙한 곡면처리, 바닥 마감 패턴의 불규칙한 사건 조합, 디스플레이 가구 및 기타 실내 가구의 비정형적 구성, 스틸파이프 및 핀치메탈등의 가설재에 의한 선형요소의 강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결론

현대건축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을 바탕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소규모 주택이나 상점 공간을 중심으로 실내디자인에의 해체주의 지향이 확산되고 있다. 쿵 힘멜브라우는 1970년대부터 실내공간을 계속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실내공간에서의 실현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체주의 경향은 젊은 건축가들과 디자이너들에게 급속도로 파급되어 실내공간 디자인은 물론 가구나 집기, 조명 디자인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실제 실현된 작품의 대부분들은 87년 이후 계획된 작품들로 이를 통해 볼 때 해체주의 경향이 실내 디자인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체주의 경향은 건축의 외적요인과 내적디자인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으며, 실내공간의 자유로운 공간 구성, 재료 사용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해체주의 경향이 작품은 공간의 해체적 구성, 도상학적인 표현상의 비정형성, 하이테크를 바탕으로 하는 구성재 사용 등의 공유점을 표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함승우, 해체주의적 건축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 및 의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론, 1990
- 정성렬, 해체주의 건축에 나타나는 비정형적 형태의 구성원리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론, 2000